

特別中繼

技術水準이 國家運命 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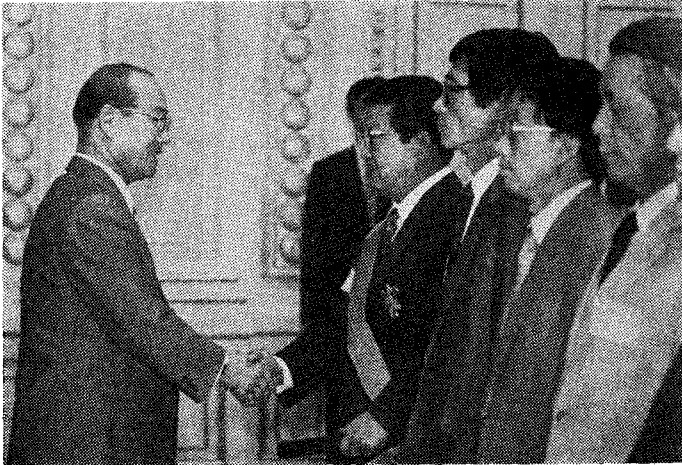
投資늘리고 基礎科學 人材育成 힘써야

本會 및 럭키금성그룹 具滋暻會長은 지난 6月 30日 字 서울신문 宋秉湖 편집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技術開發戰略과 企業人으로서의 經營哲學 등에 관한 所信을 밝혔다.

지난 6月 28日에 있는 技術振興擴大會議에서 技術開發有功經營者로 金塔產業勳章 受賞(사진)을 契機로 마련된 이날 인터뷰에서 具滋暻會長은 『지금까지의 企業環境을 들여다보면 外國의 技術을 들여와서 이를 우리의 實情에 맞게 土

着化시키고, 다시 이를 發展시키는 段階였으나 최근들어 尖端 科學技術을 保有하고 있는 先進國들이 이른바 부메랑 效果를 두려워하여 尖端 技術移轉을 기피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우리는 獨自의인 技術을 發展시켜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應用分野보다 基礎科學 分野의 發展에 힘써야 하며, 다음으로 未來 尖端技術의 主役이 될 技術人力을 育成해야 한다』고 強調했다.

具滋暻會長은 또 『나의 企業理念은 「人間



■ 金塔산업훈장을 받으셨지만 具회장에게는 오히려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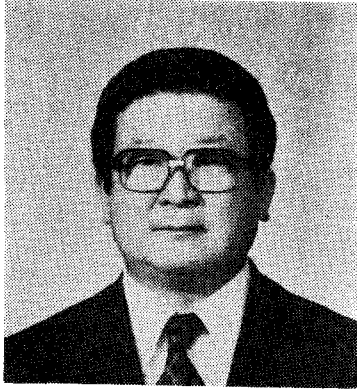
『어디요, 큰 영광이지요. 科學기술진흥에 대한 훈장으로는 첫번째이며, 최고의 훈장이니까요. 공로로 따지면 나 뿐이겠습니까. 감사히 여길 따름입니다.』

■ 어떤 기술개발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다만 럭키금성그룹회장으로서 기업이 살고, 또 우리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과학기술의 개발 향상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많이 투자하도록 했고 계열 기업들을 고무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훈장을 준것이라기 보다는 럭키금성그룹에 준것으로 봐야겠지요.』

■ 30여년전 보잘것 없는 가내공업 규모의 공장으로 시작하여 오늘날 한해 매출고 7조7천억원에 이르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한 데는 독특한 經營哲學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뭘, 철학이랄 것까지야 있나요,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나의 기업이념은 「인간」 「기



<本會 具滋暻會長>

「技術」「未來」라고 밝히고『人間關係가 원만해야 企業이 어려움없이 자랄 수 있고, 開拓精神에 의해 獨自的인 科學技術을 開發·發展시켜 나가야 競爭力을 기를 수 있으며, 그래야 企業이 未來에 살아남고 發展할 수 있다』고 強調했다.

具 滋暻會長의 인터뷰 내용을 中繼한다.

<編輯者註>

술」「미래」입니다. 인간 관계가 원만해야 기업이 어려움없이 자랄 수 있고, 개척정신에 의해 독창적인 과학기술을 개발 발전시켜 나가야 경쟁력을 기를 수 있으며, 그래야 기업이 미래에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다는 평범한 원리지요.』

■ 평범한 원리라 하셨지만 그 세가지 이념을 기업경영에서 실행에 옮기자면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럭키금성은 웬만한 결합이 있더라도 사람을 해고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人間重視지요. 흔히 「人和」라고 합니다만 아주 중요합니다. 능력이 없다. 열의가 모자란다 해서 사람을 마구 해고하면 당장은 능률이 오르고 생산성이 높아질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리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적절한 자리만 준다면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人和」에 도움을 주고 경영에 「得」이 됩니다.』

■ 말을 과학기술 개발로 들립시다만 우리의 기술 수준은 어디쯤 와있으며 앞으로의 개발전략은 어떠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기업환경을 돌이켜 보면 외국의 기술을 들여와서, 이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토착화시키고, 다시 이를 발전시키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이른바 부메랑효과를 두려워하여 첨단기술의 移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응용분야보다 기초과학분야의 발전에 힘써야 하며, 다음으로 미래 첨단 기술의 주역이 될 기술 인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또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므로 자원의 낭비를 막아야지요. 정부·기업·연구기관이 협력해야 할 뿐더러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끼리라 하더라도 중복투자를 피하고 힘을 합쳐 첨단기술을 공동개발토록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 흔히 첨단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 긴요하다고들 합니다만 과학기술이 어떻게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과학기술이란 남보다 더 품질이 좋고, 더 값이 싼 상품과 용역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 보면 좋을 것입니다. 국제적 比較優位를 확보하는 것이지요. 이런 기술은 앞서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보다 노력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지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는 매출고의 1.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늘려야지요』

■ 우리나라 첫 민간연구소를 설립한 럭키금성 그룹의 기술개발 투자 현황과 앞으로의 전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술개발투자는 국내 평균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83년엔 매출고의 3.4%, 84년엔 4%였고 앞으로는 6~7%수준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90년까지 모두 2조 5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반도체·컴퓨터의 응용기술과 종합 통신망시스템·자동화 기술·광통신·레이저광선·전자 의료기기등 새로운 분야개발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오>